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음 10월 12일) 제24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500년 잠든 봉수왕국, 가야 깨우다

도, 남원 유곡·두락리 고분군 일대서 '전북가야 한마당' 상징성 부각 봉수재현식·고분 탐방·지역주민 축제 다채

전북가야의 정체성 확립과 가야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교류의 장이 열렸다.

전북도는 7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일대에서 '봉수왕국 전북가야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17년 11월 전북가야 선포식 이후 처음으로 전북 동부권 지역의 가야문화권 7개 시·군 단체장과

도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봉수왕국 전북가야를 재조명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남원시관광협의회가 주관하고 전북도와 남원을 비롯한 7개 시군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선인들에게 고하는 고유제로 축제의 서막을 시작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남원농악과 전북도립국악원의 춘향가 공연이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개막행사 중 하나로 진행된 봉수재현식은 무대에 마련된 봉수 조형에서부터 매봉 봉수와 봉화산 봉수로 이어지는 접화 모습을 재현하여 과거 국가 방어체계이자 통신수단이었던 봉수의 역사적 의미와 전북 동부지역에서 화려하게 꽃피었던 봉수왕국 전북가야의 상징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봉수재현 후에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2호분 탐방이 이루어졌으며, 행사장 내 부스에는 가야의상 체험, 문화재 발굴 체험, 국악기 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7개 시·군의 홍보부스가 운영되었고 행사장 길목에는 7개 시·군의 가야유적발굴 사진전이 열

려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오후부터 시작된 2부 행사에서는 7개 시·군 대표 공연단의 공연과 초청 가수의 공연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한마당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가 1500년 전 전북 동부권 지역에서 화려하게 꽃피었던 전북가야를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도에서도 전북가야사 규명과 정체성 확립을 역사적 소명으로 알고 전북가야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7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일대에서 '봉수왕국 전북가야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사고·외고, 2025년부터 일반고 전환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전국단위 자사고·일반고 학생모집 범위도 시·도 단위로 변경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학생들부터는 자사고에 진학할 수 없다.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총 79개교에 대해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 발표에 따르면 자사고 등이 고등학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즉시 일반고로의 일

괄 전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까지는 기존의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2025학년도 고입 선발 전형부터 일반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 학생모집 범위도 각 시·도 단위로 바뀐다. 2025년까지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 속한 상산고는 평준화 원칙에 따라 지방·배정된다. 하지만 도내 다른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상산고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익산고등학교 등 전국단위 일반고도 마찬가지다. 한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등에 한 학교당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에 있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진로교육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또한 단위학교별로 진로설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도 강화한다.

오는 2024년에 진로설계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도입해 내년에 100여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현장에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현될 수 있도록 교대·사범대학의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인권 보호·존중 확산

전북 인권문화 컨벤션 10일까지 개최

전북도와 2019 전북도 인권문화 컨벤션 추진위원회는 7일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이란 주제로 4일간 열리는 2019 전라북도 인권문화 컨벤션의 막을 올렸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맞는 인권문화 컨벤션 기념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회의장, 정영선 전북인권위원장, 전북도내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및 도내 인권단체 대표와 인권지킴이단을 비롯한 도민들이 참여해 유공자 표창, 인권작품 공모전 입상작 시상 및 다양한 인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수인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신인철 서울연구연구원, 박동일 수원시인권담당관, 유근중 광주광역시 인권평화교류담당 등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전라북도가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2일차인 8일 오후 2시 도청 중회의실에서는 '가정 내 인권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등 5개 분야 영역에서 활동하는 도내 인권보호 활동가의 진단과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세계인권선언 낭독
 인권증진 방안 토론
 홍보·체험 부스 운영
 인권영화제 등 열려

올해 인권증진 표창대상자로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TF팀 등 인권유공자 6명이 선정됐으며, 2019 인권작품 공모전 입상작 포스터부문 '인권이라는 지붕 아래, 우리', UCC부문 '인권 침해 stop' 등 총 4개 부문 18점에 대해 시상하고, 행사기간 내 작품이 전시된다.

인권영화제는 9~10일, 2일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되며, 9일 '4등' 상영 후 정지우 감독과의 대화 및 '두안에게', '가버나움', 10일 '하늘의 황금마차', '주전장', '마이리를 히어로'를 무료로 상영할 계획으로 스포츠,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다양한 인권영화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비전 실현을 위해 인권문화 확산과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여성, 노인, 다문화이주민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전북 여성대회 개최 16면 -손흥민, 한국인 유럽 통산 최다골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taka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